



-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4일 協會研究室에서 第74回 發明敎室을 開催했다. 毎年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敎室은 이달에도 1백여명이 出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敎室에서는 만능기계(주)

기름겸용 온수보일러 發明家

만능기계(주) 朴 興植 사장

구멍탄과 갈탄 및 가스, 기름 등의 연료를 겸용하는 온수보일러를 發明하여 화제가 되고있는 만능기계(주) 朴 興植 사장. 그는 20년 동안을 보일러와 더불어 살며, 기름·연탄겸용 보일러에 대한 6건의 實用新案을 出願했다.

박사장은 기름겸용 온수보일러의 發明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76년 기름값이 폭등하자, 많은 가정에서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탄·기름겸용 보일러의 發明을 생각하게 된거죠.』

그의 연구는 10년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86년 드디어 기름·연탄겸용 보일러를 완성, 6건의 實用新案을 出願했다.

'88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출품되어 상당한 인기를 누린 기름·연탄 겸용 보일러는 상공부 고시 89-16 기계류 소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공업발전기금과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박사장이 發明한 이 기름·연탄 겸용 보일러는 연탄보일러 부분을 교체할 수 있어 시중보일러의 수명이 3년 인데 비해 7년이나 더긴 10년간 사용할 수 있고, 두대의 성능을 갖춘 보일러 설개로 연료비와 보일러 유지 및 설치비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보다 30%나 절감

된다.

『7전8기의 정신자세가 중요합니다.』

박사장은 이러한 정신자세로 노력하여 88년 5월30일 만능기계(주)를 설립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은 경성 SOS보일러 제조 메이커를 탄생시키기 위해 하남시 공장과 상주, 평천 농공단지 공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완공하는대로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월말경이 준공예정이라는 박사장은 發明企業人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

